현불 논단

투표, 기후변화 운명 결정한다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2050년 탄소중립 위해서는
기술 개선 · 정책 도입 절실
개인 실천으로는 한계 여실

온실가스 배출 80% 점유한
고소득 국가서 방향 전환을

바른 환경 정책 가진 후보를
올해 각종 선거에서 선출해야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높아지면서 탄소 자국을 줄이려는 개인행동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08년 15만 명이었던 채식인구는 10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그렇다면 채식을 포함하여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덜 구매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개인의 행동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상태)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의 40%는 재생에너지 확대나 산업부문의 청정기술 사용을 위한 정책도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55%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에너지효율 기술 개선, 주택의 단열 개선 등과 같이 정부의 조치와 소비자의 선택이 결합된 행동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반면, 비행기를 덜 타거나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개인행동만으로는 4% 정도 줄일 수 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차원의 행동만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기술 개선과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개인적인 차원일지라도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처(Nature)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2050년까지 약 50%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부유한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 일본과 한국 등 G20 국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점한다. 특히, 전 세계 상위 10%의 부자들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행동은 중요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0%, 재생에너지는 6.5% 수준에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0%가 넘는 독일과 영국과 비교되기 어렵고, 전 세계 평균인 27%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공정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개도국보다 더 많이 배출한 한국은 2050년 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외에도 철강, 시멘트, 정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과감한 축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전환에 동반될 사회적 부담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겪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나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에너지와 산업전환과 정책변화의 흐름을 3~4년 이내에 선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의 충격과 공포를 경험했던 국민이라면 국가 지도자의 선출이 나의 삶, 가족의 생명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기억할 것이다. 수많은 기업이 줄도산하면서 거리로 내몰리고 해체된 가정이 부지기수였다. 많은 국민이 현재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IMF 당시 금융권에만 투입한 국민 혈세가 160조라는 것을 기억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가계부채 탕감은 거론조차 죄악시하면서 대기업과 금융권은 늘 국민 혈세로 빚잔치를 해왔다.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과 정치인이다. 정책을 보고 선출하기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선출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오는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 6월 1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나와 공동체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쉬운 선택으로 투표만한 것이 있을까.

社 說

불교공약, 이번엔 현실화될까

올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20대 대선 정책자료집' 을 발간했다. 크게는 △국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유산 △국민과 함께하는 자연문화공원 △국민과 함께하는 평등세상 △남북이 함께하는 불교문화교류 △불교계 현안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불교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목만 봐도 대략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지 충분이 예상 가능하다. 매번 대선 때마다 되풀이 돼온 불교계 숙원과제였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불교정책을 제안해 왔다. 제17대 · 18대 · 19대 모두 각 후보들은 이를 반영해 불교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왜 불교계는 아직도 과거와 대동소이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 발언' 이 불교계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이유 역시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이미 17대 이명박 前대통령 당시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이후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다. 불교계가 15년을 기다렸지만 변화는 없었고 '문화재 관람료' 는 '통행세' 로, 사찰은 '봉이 김선달' 로 전락했다.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보다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논의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챙기고 점검해야 한다. 그 전제로 불교계가 요구하는 정책들이 '밥그릇 챙기기' 가 아닌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발전, 또는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인 현안이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종교편향 대응은 '파사현정'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과 문재인 정부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 교구본사와 승가단체, 포교신행단체들은 불교폄훼를 자행한 정청래 의원의 진정한 참회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은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키로 최종 결정하고 종단적 역량을 총집결키로 했다.

중앙일간지와 몇몇 불교단체들은 조계종의 문제 제기를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는 등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종교편향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조계종으로 대표되는 한국불교의 공분을 쉽게 알 수 있다.

1945년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 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기독교국가의 건설을 주장했던 당시부터, 공공영역에서 종교편향 · 종교차별의 역사는 예견돼 왔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의식구조는 '종교 인권 감수성' 의 미비로 이어졌고, 각종 편향 정책을 야기했다.

1차로 폭발 사례가 이명박 정부다. 당시 이명박 前대통령은 조찬기도회서 무릎을 꿇었고, 정부의 국가교통정보시스템에서 사찰 정보를 누락시키는 등 종교편향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08년 8.27범불교대회가 열렸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을 '알현' 했고, 문체부는 캐롤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공공선교' 를 자임했으며, 여당의 의원은 불교를 '봉이 김선달' 로 매도했다. 종교편향은 비단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악습이다. 이에 맞서는 것은 '파사현정' 행위, 그 자체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① 오징어 게임

인간, 본래면목 보이다

"어두워져 가는 골목에 서면,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이 날거야. (중략) 이제는 커다란 어른이 되어 눈을 감고 세어보니, 지금 내 나이는 찾을 때도 됐는데."

필자는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을 본 직후 조용필의 노래 〈못 찾겠다 꾀꼬리〉를 흥얼거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한다는 게 〈오징어게임〉 서사의 골자이다. 〈오징어게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게임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게임을 중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게임까지 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게임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 때문에 은연중에 관객들은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 거액의 상금에 눈이 멀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비인간적인 게임을 창시한 것은 일남이다. 일남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게임을 창시한 이유는 게임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이는 작품 말미에서 일남이 기훈에게 혹한의 날씨에 눈밭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내기를 하자는 대목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종교의 주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인간이 신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되고, 불교 입장에서 보면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상에 따르면 죄인의 반대말은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義人)이다. 죄인은 원죄를 지은 아담처럼 신의 섭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원죄를 대속한 예수처럼 신의 섭리에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불교 사상은 어떨까?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자질이 가지고 있다는 게 대승불교 사상의 근간이다. 다만 세친은 〈유식론(唯識論)〉에서 '일천제불성불론(一闡提不成佛論)'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근을 단절한 중생은 성불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헝거게임〉등 서바이벌 게임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빚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오징어게임〉은 다른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영상물과 달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달고나 등 어린이의 놀이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어른들의 놀이와 달리 영리적 목적의식이 없다. "그렇게 재밌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야"라는 일남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어린이들의 놀이는 순전히 재미에 목적이 있다. 놀이의 규칙도 어른들의 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분별심이 적기 때문이다.

연출가는 어릴 적 놀이를 목숨 걸고 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본래면목을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있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福
새해에도 BTN과 함께
어두운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이고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튼다
- 성우스님 시집 '마음' 발췌 -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olleh 233번 tv 305번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